

말씀의 샘

순종과 믿음 <누가복음 17:5~10>

누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실제적이고도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나서, 믿음에 자극이 생긴 듯합니다.

우리도 보통 영적인 간증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때론 무섭게도 느껴지기도 하고, 때론 우리 믿음의 현주소에 대해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흥회 참석을 하고는 회개의 메시지에 은혜를 받으면 그때부터 철야 기도를 하거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갈망이 올라오게 되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5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이런 도전은 좋은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돌아보고 믿음이 더해지길 소원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은 좋은 자극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곧이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6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뿔 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믿음의 효능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특별히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으로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뒤에 이어져 하신 말씀이 “믿음을 더하소서”에 대한 답변으로 과연 맞는 대답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7:7 너희 중 누구에게 발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9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10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은 어떨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그 누구도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열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마디로 “믿음을 더하소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종이 종다워야지”입니다. 이렇게 배려도 없고 종을 막 대하는 주인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해야하며 순종해야 한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할 핵심적인 믿음의 태도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주님은 믿음을 달라는 제자들에게 진짜 능력 있는 믿음의 핵심적인 비결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섬기고, 너희 기준 너희 생각과 맞지 않는 것 같아도 ‘무익한 종입니다’ 하며 겸손함으로 중심으로 복종하면, 천지만물(뿔나무)도 너희 말에 순종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은 종처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함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천지만물도 우리에게 복종한다는 말씀을 함께 하신 본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로, 모세도 처음에는 불순종했다가, 후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니까 천지만물이 모세에게 복종하며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 얻으며 믿음의 역사는 순종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왜 사도행전적 믿음의 역사와 기적이 이토록 희귀해져 것일까요?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서부터 소멸해가며 점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형식적이고 인본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해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교회에 믿음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종된 자제로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 똑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똑똑한 의견과 생각을 주장할 줄만 알지 순종하려는 사람이 적은 것입니다. 누가 종되려고 합니까? 조금도 자기 손해 안 보려 하고, 조금도 자기 자존심 상하지 않으려 하고 조금도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없으니 믿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하나님은 유럽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수고와 준비한 것들은 다 순간에 물거품이 되는듯했지만 바울은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있다고 무조건 되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께 맞춰서 순종해야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명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순종의 여정입니다. 그가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집을 떠났고 가라만 가고 서라만 서는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의 여정의 정점은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겠습니까? 저녁집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집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경험하려면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굴복하려는 자에게 성령님은 강하게 임재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을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고 선포하고 구한대로 얻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는 너희가 생각하기에 마음에 안 들고 너의 뜻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100% 받아들이고 감사함으로 복종할 때 이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할 때, 우리 앞에 뿔나무같이 뽑아내기 어려운 문제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며, 산과 같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도 우리에게 복종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얻길 바라고 구하는 건 응답받길 바라면서 너무 우리의 소원과 관심,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놀라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할렐루야!

2016. 7. 31 수련회 주일 예배 이 강화 목사

2016. 8. 7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사도행전 1장 6~8절

말 씀 선포 ----- 이 강화 목사

"사명에 집중할 때"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8:00

새벽 기도 : 화요일~토요일 오전 6:00

